



보도시점 2025. 1. 22.(수) 조간 누리망·방송 2025. 1. 21.(화) 12:00

갈수록 진짜 같은 전화금융사기, 가스라이팅의 덫

- 카드 배송원 사칭 전화를 넘어 실물카드까지 전달... 미신청 카드는 무조건 가짜
- 행동 통제와 심리적 지배에 더해 각종 예방조치까지 무력화해 피해 가중

I 전화금융사기 현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3년 들어 주춤하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2024년 점차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사칭형 수법은 상대적으로 보유재산이 적은 청년층에서 보유재산이 많은 장년·고령층으로 범행 대상이 변화하고, 피해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카드 배송원’ 사칭 시나리오가 등장하면서 발생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 기관사칭형 20대 이하 피해자 비중은 '23년 75%→ '24년 51%로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은 '23년 15%→ '24년 35%로 2배 이상 증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접수한 ‘카드 배송 사칭’ 관련 신고는 2024년 11월 한 달간 6,619건으로, 88건에 불과했던 작년 11월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센터는 지난달 원격 제어 앱에 대한 주의 메시지를 통신3사 전체 가입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II 기관사칭형 상세 수법

□ 접근

범죄조직은 카드 배송원이나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방식

에서 더 나아가, 실물 카드를 우편함에 배송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된다.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 범인은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가짜 카드회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하도록 권유한다.

□ 행동 통제

가짜 고객센터 상담원은 명의도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 전화에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고, 범인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악성 앱을 설치한다. 악성 앱은 모든 전화를 가로채고, 녹음·위치 기능도 탈취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행동은 통제당하게 된다.

□ 심리적 지배

이후 금융감독원 및 검찰 사칭범이 등장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됐으니 자금 검수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속인다.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더라도 위조한 문서들을 보여주며 ‘우리가 당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구속수사 없이 약식수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해주면서까지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고 호통치거나 위로하는 등 소위 ‘가스라이팅’을 한다.

□ 피해 예방활동 무력화

범죄조직은 피해 예방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범행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먼저, ‘은행과 통신사는 물론, 경찰까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서 절대로 자금조사에 대해 말하면 안 되고, 이를 발설하면 가족까지 구속 시키겠다.’라며 불신을 조장한다. 이로 인해 은행원과 경찰관이 피해자를 아무리 설득하더라도 믿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범인은 은행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 예방진단을 대비해 피해자에게 문진표에 전부 X를 표시할 것과 인출 사유를 물으면 ‘사업 계약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계약이 틀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라고 답하면서 항의하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은행 지점별 직원의 이름과 직급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문진을 하는지를 보고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인출이 수월한 지점을 파악한 후 다음 범행에 활용한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연락은 모두 가짜다. 실제로 카드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공식 채널 및 대표번호로 배송 관련 알림톡이나 문자를 발송하며, 계약된 배송업체를 통해 카드를 배송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배송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카드는 본인이 받은 경우에만 자동으로 사용등록이 될 뿐,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타인이 받았으면 자동응답 시스템(ARS)이나 앱을 통해 별도로 사용등록을 해야만 활성화된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112(통합신고대응센터)로 신고하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예방 수칙 >

- ❶ 신청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락을 받으면 112로 신고한다.
- ❷ 공공기관·금융기관은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모르는 사람에게 원격제어 앱의 접속(승인) 코드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https://www.msafes.or.kr>) 가입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 안내사항을 따른다.
- ❹ 주기적으로 백신 앱을 실행하여 악성 앱을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한다.

경찰청은 가족·친지 등 모임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을 활용하여 ‘카드 배송원 사칭’ 수법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담은 홍보 영상을 각종 미디어를 통해 집중적으로 송출하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된 웹매거진을 발간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신종수법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조직은 편리해진 금융서비스 앱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자산 현황을 파악 후 집요하게 범행을 시도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인증번호를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범죄조직은 각종 대출까지 받게 하여 피해금을 빼앗기 때문에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법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 관련 제공자료

(영상) 기관사칭형 예방 홍보영상

(이미지) 경찰청 웹매거진 ‘월간 피싱제로’(창간호)

(기타) 통계 및 참고자료 / 수법별 범행 시나리오

담당 부서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책임자	총경	강태영	(02-3150-2037)
		담당자	경정	박상현	(02-3150-3438)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책임자	총경	안찬수	(02-3150-0141)
		담당자	경정	백의형	(02-3150-2782)



□ 연도별 전화금융사기 현황 (※ 2024년 12월 통계는 집계 중)

구분	합 계		기관사칭형		대출빙자형	
	발생건수	피해액(억 원)	발생건수	피해액(억 원)	발생건수	피해액(억 원)
'21년	30,982	7,744	7,017	1,741	23,965	6,003
'22년	21,832	5,438	8,930	2,077	12,902	3,361
'23년	18,902	4,472	11,314	2,364	7,588	2,108
'24.1~11월	18,676	7,257	8,481	4,397	10,195	2,860

□ 성별·연령별 전화금융사기 피해현황

구분		합계(명)	성별	소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3년 (1~12월)	기관 사칭형	11,314	남성	7,775	6,169	622	186	241	323	234
			여성	3,539	2,325	184	183	251	308	288
	대출 빙자형	7,588	남성	4,544	222	451	1,041	1,636	1,015	179
			여성	3,044	170	364	915	1,021	498	76
'24년 (1~11월)	기관 사칭형	8,481	남성	4,552	2,712	558	223	285	491	283
			여성	3,929	1,602	202	176	496	1,095	358
	대출 빙자형	10,195	남성	6,236	407	732	1,375	2,178	1,350	194
			여성	3,959	217	450	1,124	1,353	729	86

□ '원격제어앱' 주의 메시지 및 실물카드 사진

'원격제어앱' 주의 메시지

실제 배송된 실물카드 사진

□ 악성앱 대처 안전지침

▶구글 안드로이드

① (데이터/와이파이 반드시 OFF) 휴대폰 설정 > 애플리케이션 > 내파일 > 하단의 열기 > 카테고리 항목에서 apk 설치파일 혹은 다운로드 목록에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파일(apk) 확인하여 삭제

② Play 스토어에서 알약, 안랩, 싹다잡아 등 검증된 모바일 백신을 다운받아 악성코드 검사 및 삭제(실시간 감지가 되도록 권한은 모두 허용 必)

▶애플 iOS

① 파일 앱 > 다운로드 목록에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파일(apk) 확인하여 삭제

② 애플 계정 강화하기(비밀번호 변경, 2차 인증 등)

- 애플 고객센터(☎080-333-4000) 문의

※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시 조치방법을 시행해야 하며, 악성 설치파일(.apk) 삭제 이후에도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싱범과의 통화기록, 문자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캡처하여 보관 후 제조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초기화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유출 방지 안전지침

①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조회 및 신청: 가입사실현황 조회 및 가입제한신청

- 엠세이퍼(www.msafes.or.kr) 사이트(PC환경,공동인증서 필(必)) 또는 모바일 (PASS, 카카오뱅크) 앱 또는 통신사 직영점 방문하여 신청

② 소액결제/콘텐츠 이용료 내역 확인 및 차단, 번호도용차단서비스 신청

- 고객센터 전화 또는 통신사 앱 통해 신청

③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 예방

- 은행 방문 또는 금감원(<http://pd.fss.or.kr>) 사이트에서 신청

④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신규대출, 카드발급, 카드론 등 서비스 차단 가능

- 은행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해제도 은행 방문)

-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신청 가능(해제는 타은행 영업점 방문, 거래유무 무관)

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노출되었을 경우에 해당)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신청

⑥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노출되었을 경우에 해당)

-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

⑦ 여권재발급 문의(★노출되었을 경우에 해당): 영사콜센터(☎02-3210-0404)

⑧ 공동(금융)인증서(★노출되었을 경우에 해당): 발급받은 기관을 통해 폐기 후 재발급

⑨ 명의도용 계좌/카드/대출 조회: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 앱) 또는 계좌정보 통합관리(www.payinfo.or.kr) 사이트에서 확인

⑩ 본인확인내역 및 가입 사이트 조회: 개인정보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 확인

접근 단계	※ 접근방식은 다양하나, 이후 기망-편취단계는 유사함 ① [전화발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 ② [문자발송] ‘해외승인, 고객님의 687,890원 결제완료 본인아닐시 상담센터: 02-1234-5678’ 등 미끼문자를 보낸 후 연락을 유도하는 수법 ③ [우편발송] 위조된 출석요구서 등을 보내서 연락을 유도하는 수법 [카드 배송원 사칭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녕하세요. 카드 배송기사입니다. ○○카드 신청하셨죠? 배송차 연락드렸는데 받으시는 분 주소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맞죠?” [피해자] “네? 저는 카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카드 배송원 사칭범] “혹시 62년 7월 11일생 김영희씨 아니신가요?” [피해자] “네. 맞는데, 저는 서울에 살지도 않아요.” [카드 배송원 사칭범] “저도 배송만 하는 직원이라 자세한 건 모르겠고, 카드 봉투에 ○○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알려드릴테니 연락해보세요. 요새 명의도용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번호는 1544-1234입니다.”
기망 단계	[피해자] “○○카드죠? 제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배송 예정이라고 해서 반송 신청하려고요.” [고객센터 사칭범] “○○카드 사고예방팀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예정인 경우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연동계좌가 사고 계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한국소비자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이런 사고가 많아서 저희 카드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데, 그 접수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접수되면 고객님의 자산을 보호 받으실 수 있어요. 사고 접수와 전산상으로 카드를 취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격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공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시고, 제가 불러드리는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보안팀에서 고객님의 휴대전화를 움직일 건데, 휴대전화 귀에 대지 마시고 정면으로 똑바로 봐주세요. 이제부터 터치하지 마시고 육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앱을 다운받을 거고, 자산보호 신청서 창을 띄워드릴 거예요. 고객님의 휴대전화 패턴 한 번 열어주시겠어요?” ※ 범인은 명의도용 피해 관련 뉴스기사 링크를 보내주며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며, 원격제어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직접 ‘악성 앱’을 설치시킨다. [고객센터 사칭범] “이제 자산보호 신청은 완료됐고, 잠시 후에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1332로 전화가 올 겁니다. 참고로 이 정보 유출이란 게 휴대전화에서도 유출되는 사례가 많아서 혹시 금융 앱을 사용하시면 2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융 앱을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들은 보안을 위해서 제가 삭제해드렸고, 카드는 정지 처리해드렸기 때문에 누가 받아도 사용할 수 없으니 염려 마세요.”

※ 범인은 금융 앱의 보안 기능을 피하기 위해 금융 앱 이용을 금지시키고, 범행에 방해가 되는 각종 보안 앱을 삭제시킨다.

※ 약 5분 후 ‘1332’란 전화번호가 표시되며 전화가 오는데, 이는 악성 앱으로 인해 전화번호 표시가 다르게 보이는 것일 뿐 실제 금융감독원이 아니다. 피해자가 받고 거는 모든 전화는 범죄조직에게 연결된다.

[금융감독원 사칭범] “금융감독원 보안부 홍길동 과장입니다. 자산보호 신청이 계속 거절되고 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이 접수되어 있을 때 거절이 되니까 ‘검찰사건조회24.kr’에 접속해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피해자 이름이 기재된 허위 구속영장, 공문서가 조회된다. 일말의 의심은 두려움과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감독원 사칭범] “최근 **명의도용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선생남도 피해를 입으신 것 같네요. 선생님 사건의 담당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임격정 검사로 확인되는데, 제가 **약식조사(수사, 기소)**받을 수 있도록 얘기해줄 테니 검찰청 대표번호 1301로 전화해보세요.”

[피해자] “검찰청이죠? 김영희라고 하는데요. 제가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것 같아서 약식조사를 신청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임격정 검사님 계시나요?”

[검찰 사칭범] “제가 임격정 검사입니다. 김영희씨라고 했나요? 안 그래도 당신을 다음 주에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고 연락한 거죠? 그리고 뭐? 약식조사요? 안산 원곡동에 있는 □□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계좌가 만들어져서 불법자금세탁 사건에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됐고, 피해자 70여 명이 집단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인데 뭘 잘했다고 약식조사를 입에 담아요? 일단 **녹취(녹음)** 중에 다른 사람 목소리가 섞이면 증거로 못 쓰니까 아무도 없는 **독립 공간**으로 가세요.”

※ 범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차량·숙박업소 등에 홀로 있도록 고립시킨다.

[검찰 사칭범] “아까 사이트에서 구속영장 좌상단에 **특급 보안(1급 비밀, 엠바고)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 보셨죠? 이런 특급 사건은 **구속·비공개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영장 하단에 구금·인치할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나와 있죠? 앞으로 구속수사로 진행된다면 48시간이란 조사 시간이 부여되고, 조사 후에 **구속**할 예정이니까 여벌 옷이나 챙겨서 올라올 준비하세요!”

※ 검사 사칭범의 호통을 들은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주었던 금융감독원 사칭범에게 의지하게 된다.

[피해자] “과장님, 검찰에 전화했더니 저한테 대뜸 화를 내면서 구속시킨다고 하는데 어찌죠?”

[금융감독원 사칭범] “선생님이 구속되지 않고 약식조사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신원보증서**를 검사님에게 제출해볼게요. 한 10분 정도 후에 다시 검사님에게 전화해보세요.”

[피해자] “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따 전화해보겠습니다.”

[피해자] “여보세요? 검사님. 김영희입니다.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검찰 사칭범] “아, 김영희 님이세요? 방금 금융감독원 홍과장님과 통화했습니다. 홍 과장님과 무슨 사이세요? 처음부터 말씀해주셨으면 제가 잘 해드렸을텐데... 아무튼, 김영희씨가 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원래 구속수사 후 판결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리니까 그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보내야 하지만, 지금부터 협조 잘 해주면 구속수사 없이 약식수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드릴게요. 그런데 김영희씨가 이런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이유가 없겠죠?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본인의 주장이 맞다면, 본인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했기 때문에 범인들에게 정보가 넘어가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되었고, 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김영희씨도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테니 잘 협조하세요. 그리고 현 사건 총 피해금이 80억인데, 김영희씨 말 한마디로 수사 내용이 유포가 되면 공범들이 해외 도주 등 은닉을 시도할 겁니다. 김영희씨가 80억에 대해서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특급사건과 관련된 범법행위, 즉 공무집행방해죄가 확인되면 최대 5년의 징역이 확정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셨다가 본인께서 징역 갔다 오실 겁니까? 아니죠?”

※ 범인은 피해자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죄책감을 들게 만들며**, 특혜를 제공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소위 ‘가스라이팅’을 한다. 한편,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 등 실존 문서를 보내주기도 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혼용하여 믿게 만든다.

[피해자] “검사님, 제가 잘 협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검찰 사칭범] “먼저, 보안 유지를 위해 **수사용(업무용)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세요.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확인되면 **모든 비용은 검찰청에서 변상**해드릴 테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통하고, **텔000(또는 라0)을 설치**하세요. 저와 홍과장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줄 테니 친구추가**하고 연락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30분마다 동선과 하는 일을 모두 보고**하세요.

	만약에 연락을 회피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수사내용을 발설하거나 위증을 하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고, 가족까지 소환장을 발부한 후 호송 줄에 묶어서 구속시키겠습니다. 아시겠죠?” [피해자] “네, 알겠습니다.” [검찰 사칭범] “분명히 말하는데, 이 사건에는 은행과 통신사, 심지어 경찰도 연루되어 있어 모든 기관이 수사 대상입니다.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김영희씨 자산이 범죄에 연루된 불법자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니까 금감원 홍 과장님 지시에 잘 협조하세요.” ※ 범인은 은행과 통신사,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시킨다. 이 때문에 은행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조차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자] “네, 검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잘 협조하겠습니다.”
편 취 단 계	[피해자] “여보세요? 김영희입니다. 홍 과장님 덕분에 약식조사를 받기로 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금융감독원 사칭범]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제 선생님이 보유하신 재산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인지, 아니면 범죄자들한테 주기적으로 받은 불법자금인지 자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면 모두 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내로 피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책임을 져야 하니까 속도를 내봅시다.” ※ 범인은 조사가 끝나면 재산을 모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한정된 처리기한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다. [피해자] “네, 과장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융감독원 사칭범] “우선 보유 재산부터 검수하겠습니다. 이 시간부로 선생님의 모든 재산은 행정자산으로 귀속되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산 출처 확인을 위해 계좌정보통합관리(어카운트인포) 앱을 설치하고, 조회 내역을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는 계좌·카드·대출·보험가입정보 등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어서 범인들이 피해자의 모든 재산을 확인하는 데 악용된다. 1차 피해 [금융감독원 사칭범] “원래 피해자 입증을 받으시려면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 방문을 해서 자금 검수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은행권 내부 조사 때문에 파견나가 계신 국세청 담당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검수를 진행할테니 □□은행 A지점과 ○○은행 B지점에 가서 돈을 수표로 찾으세요. 은행 직원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하면 전부 X를 체크하고, 인출 사유를 물어보면 사업 관련 계약 건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하세요. 계속 지연시키면 ‘당신이 위약금을 책임질 것이냐’고 강하게 말하세요.”

※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문진을 실시하는데, 수표는 추적이 가능해 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있다. 범인은 이 점을 악용해 피해금을 현금이 아닌 수표로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인출사유(인테리어 비용, 중고차 구입비, 자녀 결혼식 지원비용 등 다양)를 코칭한다.

[피해자] (은행을 다녀온 후) “과장님, 은행 두 군데 다녀왔는데, A지점은 인출 사유를 자세하게 물어보면서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된다고, 은행에 현금이 없다고 안 주더라고요. B지점도 어디에 사용할 건지 물어보고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설명해주긴 했는데, 제가 계약 때문에 그렇다니까 더 이상 별말은 안 하고 수표를 발행해줬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칭범] “검사님이 은행도 연루되었다고 하셨던 말 기억나시죠? 김영희씨, A지점과 B지점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정상적인 은행이면 고객이 본인 돈 찾으러 온 것을 안 주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A지점은 범죄에 연루된 곳이라 검찰에서 김영희씨 진술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겁니다. 앞으로 몇 번 더 은행에 가야 하는데, 제가 지정해주는 은행만 가시고, 돈을 찾은 뒤에는 은행 직원의 이름과 직급,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잘 설명해주는지 보고하세요.”

※ 범인은 적극적으로 문진을 하는 은행을 오히려 범죄와 연루된 곳으로 오인하게 만들며 피해예방 활동을 방해하고, 지점별 정보를 확보해 다음 범행에 활용한다.

[금융감독원 사칭범] “국세청 직원을 월계동 364-〇〇번지로 보낼 테니까 다른 말은 하지 말고, 먼저 인사 후에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한 마디만 하시고 수표를 제출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급안건**이기 때문에 대포통장이든 명의도용이든 이런 건 절대 말하지 마세요. 국세청 직원 이름은 ‘강국세’이고 키는 170cm, 안경을 착용했으며, 연한 체크무늬 흰 셔츠와 감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 여기서 국세청 직원이란 자는 사실 현금 수거책이다.

[피해자] “과장님, 국세청 직원에게 수표 전달 완료했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금융감독원 사칭범]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피해자] “아니요, 너무 걱정되어서 누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칭범] “선생님, 제가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피해자] “네, 과장님. 그런데 이거 혹시 전화금융사기는 아니죠?”

[금융감독원 사칭범] “전화금융사기 아니에요. 전화금융사기면 뭐하러 본인 앞으로 저희가 담당자까지 배정해서 만나게 합니까? 계좌이체하면 그만인데... 담당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본인에게 도움 드리고 있으신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피해자]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빚을 진 것처럼 만들며 다시는 의심하지 않도록 세뇌시킨다.

2차 피해

[금융감독원 사칭범] “내일은 **예·적금, 증권, 주식, 보험을 모두 해약**해서 한 계좌에 모아두세요.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 계좌에 그대로 두면 범인들이 인출해갈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여기에 전부 이체하세요. 자금 검수 후 돌려드릴게요.”

[피해자] “과장님, 국가안전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거죠?”

[금융감독원 사칭범] “야근하느라 답장이 늦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지요. 검사님이 연락드릴 겁니다.”

※ 범인은 피해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앗아간다. 재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액 피해사건은 보통 2주간 이뤄진다.

3차 피해

[검사 사칭범] “김영희씨? 지금 범죄조직이 김영희씨 명의로 **복제카드와 통장·복제폰**을 개설한 게 확인됐습니다. 불법자금 역추적을 해볼건데, 먼저 **‘뱅크페이’ 앱**을 설치하고 은행과 계좌번호를 등록하세요. 완료하셨으면 앱 결제 클릭할게요. 구매코드 숫자입력 나오시죠? 역추적을 위해 제가 코드를 불러드릴테니까 입력하세요. 167709. 지금 본인 앞으로 대포폰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복제폰**으로 문자가 빠져나가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피싱 주의 안내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까지 클릭하시면 금융거래명세서 불법코드 문자메시지가 5개를 받을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눌러서 전체 복사 후 채팅방에 붙여넣으세요. 글자 전체를 복사해서 보내주셔야 증거자료로 채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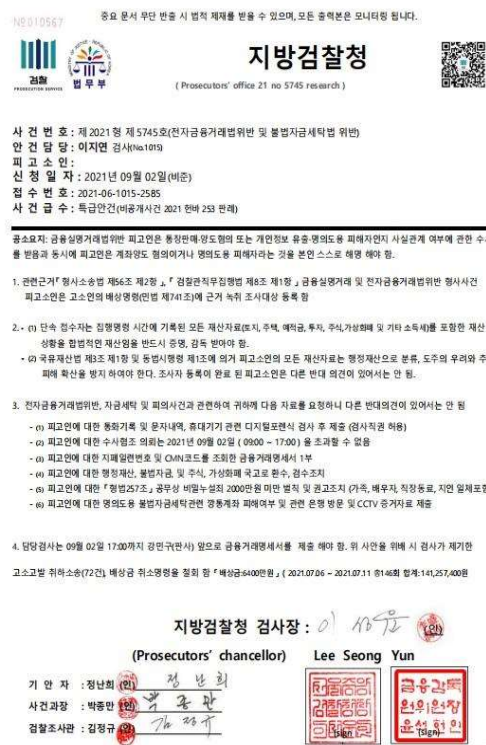
※ 범인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인 뱅크페이를 악용하여 온라인상품권 PIN번호를 전달받아 편취한다. 문자에는 피싱을 조심하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를 알고 있는 범인은 수사의 한 과정인 것처럼 태연하게 거짓말한다.

[피해자] “검사님, 근데 은행에서 자꾸만 전화가 오는데 어떡하죠?”

	[검사 사칭범] “은행에서 전화 오는 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포폰이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IP 추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가 오기도 해요. 전화 무시하시고 전화오면 저한테 말씀만 하시면 돼요.” ※ 범인은 은행 모니터링팀에서 하는 예방조치를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응한다. 4차 피해 [금융감독원 사칭범] “선생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대출 지급 정지(금융제재, 락)를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좌에 담긴 돈을 모두 국가안전계좌로 이체했기 때문에 잔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야 정상인데, 전산상으로는 잔액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계좌를 강통계좌(스텔스 계좌)라고 부르고 있어요. [피해자] “대출 지급정지랑 강통계좌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금융감독원 사칭범] “쉽게 말해 선생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막아줬는데,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면 범죄조직이 불법적으로 대출 승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조직이 선생님의 재산을 모두 훔쳐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인 거죠.” [피해자] “네? 과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금융감독원 사칭범] “선생님 명의로 신용대출(카드론)과 담보대출(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 공제회 등)을 신청하세요. 만약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모두 국고로 환수조치 후 이상이 없으면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 범인은 대출금까지 앗아감으로써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 정부·공공기관은 절대로 수사·자금 검수 등을 명목으로 국민에게 대출을 신청하라거나 금전 등 재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증거인멸단계	[피해자] “대출금까지 모두 전달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난 거죠?” [금융감독원 사칭범]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지요? 자금 검수가 거의 끝나갑니다. 남은 절차는 검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검사님, 김영희입니다. 제 사건은 해결되었을까요?” [검찰 사칭범] “아, 김영희 씨. 이번 주 중으로 사건 종결 예정입니다. 사건 보안 유지를 위해 채팅과 통화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휴대전화도 전부 초기화하세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 범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삭제하도록 하거나 원격제어 앱으로 직접 삭제한다. 고립에서 벗어난 피해자는 얼마 뒤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위조된 검사 신분증



위조된 검찰청 공문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
(※ 실제 사이트와 구성 동일)



위조된 사건조회 화면

※ 접근방식은 다양하나, 이후 기망-편취단계는 유사함

① [전화발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

② [문자발송] 「A은행 홍길동 팀장. 24시간 대출상담 가능. 대출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t.me/abc>」

→ 링크 클릭 시 텔000 대화방으로 접속되는 수법

③ [광고·사이트]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광고나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보고 피해자가 대출 상담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연락하는 수법

[A은행 사칭범]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김영희 고객님의. A은행 홍길동 팀장입니다. 저렴한 대출상품이 나왔는데, 대출 가능 여부 조회해드릴까요?”

[피해자] “마침 기존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웠는데, 조회 좀 해주세요.”

[A은행 사칭범] “네, 고객님의. 그럼 제가 간단한 본인인증 후 가조회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증번호 6자리를 보내드릴테니 저한테 알려주세요.”

(조회 후) “연 4.2% 금리로 총 6천만 원 대출 가능하세요. 진행을 원하시면 제 **O톡 ID를 알려드릴테니 친구 추가**를 하시고 대화 걸어주세요.”

※ O톡 외에 **텔000, 라O** 등 해외 메신저 앱을 이용하기도 하며,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가짜 명함**을 보내거나 **도용한 증명사진·가족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둔다.

※ 이미 피해자의 대출내역을 알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나, 금융 플랫폼이나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인증을 받아 조회하기도 한다.

(이후 채팅 또는 전화를 번갈아 이용하며 대화가 진행된다.)

[A은행 사칭범] “저희가 **특정 기종의 휴대전화로만 접속이 가능한 대출 앱**을 설치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혹시 다른 기종을 쓰시면 공기계를 구입 후 유심만 교체하거나 새로 개통하셔야 합니다. **대출신청서 파일**을 보내드릴테니 작성하시고, ① 신분증, ②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③ 통장사본, ④ 메일주소, ⑤ 주소지를 함께 보내주세요. 심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A은행 홍길동 팀장이었습니다.”

※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파일이나 가짜 은행 앱 설치 링크를 보내 **악성 앱**을 설치시키기도 하며, 최근에는 휴대전화 보안이 강화되자 먼저 **원격제어 앱**을 설치시킨 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조종하여 정상적인 은행 앱과 백신 앱을 삭제한 후 직접 악성 앱을 설치시키기도 한다. 또한, 실제 대출 과정인 것처럼 정교하게 꾸며진 대본을 이용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A은행 사칭범] “요즘 워낙에 인증서 해킹을 통한 전화금융사기·스미싱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저희 쪽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되면 고객님의 인증서 보호를 위해 은행 앱이 잠시 차단되실 거예요. 자금 받아보시기 전에 저랑 고객님의랑 전자서명 진행하실 건데, 불편하시더라도 서명 전까지만 은행권 앱 이용은 안 되시고요. 서명 후에는 대출금 들어온 거 확인하셔야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용 가능하세요. 혹시라도 고객님의 놀라실까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계좌이체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은행 ATM기나 인터넷뱅킹 이용하시는 건 문제되실 거 없습니다. 휴대전화 모바일로만 은행권 앱 이용이 일시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범인은 악성 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의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은행 앱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한편, 전화금융사기·스미싱을 오히려 먼저 언급하면서 범죄 의심을 피하려고 한다.
기 망 · 편 취 단 계	[A은행 사칭범] “고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심사과에서 방금 심사승인 공문이 이관처리 되셨고요. 지금부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 통화 내용은 저희 은행 규정으로 인해 녹취가 된다는 점 인지해주시고요. 녹취통화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자] “네, 알겠습니다.” [A은행 사칭범] “우선 본인확인차 성함이랑 주민번호 앞자리 말씀해주세요.” [피해자] “김영희, 620711이요.” [A은행 사칭범] “2025년 1월 14일자로 김영희 고객님의께서 사용 중인 B은행의 기 대출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저희 A은행에서 6,000만 원 최종승인이 나셨습니다. 저희 측 대출금 받아보시고 대환하실 해당 금융사에 영업일 기준 5일 내로 상환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피해자] “동의합니다.” [A은행 사칭범] “네, 본인께서 동의하셨으므로 해당 기관에 따로 통보가 들어갈 거고요. 대출금리는 연 4.2% 고정금리시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시겠고요. 원리금 균등분한상환으로 매월 상환금액은 1,776,782원으로 확인이 되시겠고요. 매월 상환날짜는 언제를 원하시죠?” [피해자] “25일이요.” [A은행 사칭범] “알겠습니다. 계약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품은 6개월 내로는 중도상환이 안 되시고요. 6개월 지나서 중도상환이나 부분상환은 가능합니다. 대출 약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릴 건데 한 부는 보관하시고, 나머지 한 부는 고객님의 가까운 지점 주소랑 팩스번호 첨부할테니 거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대출금 받기 전에 저희 결제팀에서 따로 전화드릴 건데 잘 받아주시고요. 지금까지 녹취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하시나요?”

[피해자] “네, 동의합니다.”

[A은행 사칭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4일자로 본인께서 녹취통화에 동의를 하셨으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시겠고요. 이행 도중 이의 있으시거나 불합리한 방식으로 고객님의 피해를 끼쳐드릴 시에는 금융감독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신 부분을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녹취통화 마치겠습니다. 고객님의, 녹취가 끊기겠고요. 심사가 통과가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한 하루되시고요. 이상으로 A은행 홍길동 팀장이었습니다.”

※ 실제 대출과 유사한, 정교하게 짜여진 시나리오로 범행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1차 피해

[B은행 사칭범]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B은행 채권팀입니다. 저희 은행에서 5천만 원 대출을 받으신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A은행에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셨네요? **금융거래법(또는 대출계약)을 위반**하셔서 **금융전산망에 지급정지 등록**을 했습니다.”

※ 이때,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란 위조 문서를 보내주기도 한다.

[피해자] “네? 불법인지 몰랐어요. A은행에 전화해서 대출 취소할게요.”

[B은행 사칭범] “이미 신청내역이 전산에 등록되어 취소가 불가할 텐데 한 번 해보시고 연락주세요.”

[피해자] (A은행에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B은행 채권팀에서 전화가 와서 지급정지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A은행 사칭범] “아, 고객님의. 기존에 B은행에서 대출받으신 거 때문인데, 원래 이런 업무는 바로 법무팀에서 처리하는데 다행히도 법무팀 통해서 금융전산망에 등록 안 하고 채권팀에서 김영희님한테 연락주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김영희님이 약정 위반하신 사실을 법무팀이 아닌 채권팀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B은행 본사 혹은 지사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은행권 전산에 위반 사실이 기록되면 절대 안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표번호로 상담하지 마시고, B은행 채권팀 담당자랑 다시 얘기해보세요.”

※ 범인은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를 교란하고, 은행 대표번호로 상담받지 못하게 만든다.

[피해자] (B은행에 전화를 걸어) “김영희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B은행 사칭범] “우선 제가 업무방침상 고지해드릴 내용 말씀드리고 해결 방안 말씀 좀 드릴게요. 금융거래법 및 대출계약 위반으로 인해 자동으로 저희 은행과의 계약이 강제 해지되면서 24시간 안에 대출원금을 갚으셔야 합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으시면 첫 번째로 금감원을 통해서 원금 및 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접수할 텐데 그때 원금의 최대 3배 위약금이 발생되고, 두 번째는 법원을 통해 고객님의 명의 모든 계좌가 차압되고, 세 번째는 보험공단에 등재되어 있는 고객님의 모든 재산과 월급의 80% 정도가 차압 되실 겁니다. 즉, **신용불량자**가 되어 앞으로 5년간 **금융거래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도 못 받게 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셔야 합니다.”

※ 범인은 ‘24시간’이라는 시한 내에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면 민·형사상 막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심리적 여유를 잃게 된다.

[B은행 사칭범] “여기까지가 고지사항이고, 해결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기존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만약에 고객님의 오랫동안 사용하신 고객님의 아니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제가 고객님의한테 이렇게 길게 도움을 드릴 게 아니라 바로 법무팀에 서류를 넘기면 그만입니다. 사실 고객님의 상환하거나 안 하거나 저한테는 따로 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고객님의 정말 모르고 이중으로 대출을 진행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법무팀에서 처리했을 경우에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저한테도 피해가 안 오게끔 어떻게든 최대한 해결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 돈이 부족하시면 지인들한테 1시간만 융통하셨다가 A은행 대출금 받고 바로 상환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상환방법 알려드릴게요.”

※ 범인은 자신이 특별히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빚을 지게 만든다. 그리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으면 ‘원금의 30~70%를 납부 시 지급정지를 해제하기로 조정했다’며 어떻게든 편취를 시도하기도 한다.

[B은행 사칭범] “고객님 건은 사고로 인한 대출금 상환이기 때문에 금융법 위반 거래기록을 남기면 안 돼서 은행 계좌가 아닌 **공중계좌**로 상환하셔야 하는데요. 금융회사마다 거래하는 법무사(또는 변호사)님이 계시고, 법적 조치가 포함된 내용은 공증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무사님

공증계좌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님 공증계좌로 진행하는 건이어서 다른 분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않으셔야 추후에 저한테도 피해가 안 생긴다는 점 명심해주시고요. 법무사님 성함은 ‘이민주’님이고, B은행, 계좌번호는 123-456-7890입니다.”

※ 비슷한 방식으로 법인·가상·해외 계좌를 알려주며 송금을 유도하기도 하며, 이체를 받으면 위조한 ‘**납부(상환·완납 등)증명서**’를 보내서 신뢰감을 형성한다.

[피해자] “네, 팀장님. 방금 입금했습니다.”

[B은행 사칭범] “고객님, 방금 전에 법무사님한테 확인했고요. 그런데 고객님께서 처음 이체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고객님한테 법무사님과 무슨 사이인지, 이체 사유는 무엇인지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전화가 오면 4가지를 여쭙볼 수 있으니 메모해주시겠어요? ① 법무사님 성함은 이민주님이고, ② 휴대전화 끝자리는 5678, ③ 78년생이고요, ④ 사는 곳은 경기도 부천입니다. 법무사님과 무슨 사이인지 여쭙보면 10살 정도 차이 나니까 아는 동생이라고 하시고, 뭐 때문에 이체를 했냐고 여쭙보면 사업자금 때문에 현금을 빌린 적이 있어서 갚은 거라고 답변하셔야 문제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 범인은 금융권 모니터링 방식을 알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답변 방식을 지도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시 ‘누가 어떻게 답변하라고 알려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팀장님, 확인 전화가 왔길래 알려주신 대로 답변했어요. 그런데 다른 여러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전화금융사기이다, 어디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계속 그러길래 그냥 끊어버렸어요.”

[B은행 사칭범] “혹시 AI 기계음 아니었어요? 고객님 말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설명만 한다는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라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그냥 받지 마세요.”

[피해자] “그려야겠어요.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 범인은 AI를 활용한 최신 모니터링 방식까지 알고 있다. 한편, 계좌이체 수법 말고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편취를 시도하기도 한다.

① 대면편취형

- ‘전산처리는 이틀 이상 소요되고, 금융거래법 위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거동 불편자**로 등록해드릴테니 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
- ‘편법으로 **현금 수동 상환(방문 추심 상환)**하는 방식이 있는데, 언제 어디로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으라’고 거짓말

② 체크카드 편취형

- '대출승인이 났는데, **체크카드를 금속처리**해야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다, 체크카드 1장당 1천만 원씩 대출이 가능한데 몇 장을 가지고 있냐? 종이박스에 포장해서 알려주는 주소로 보내라'고 거짓말

※ 이때, 현금·귀금속·카드 등은 배송이 안 되므로 ▲접수 시 일반물품으로 접수할 것 ▲내용물이 안 보이게 테이핑할 것 ▲무게감이 있도록 다른 물건을 함께 넣을 것을 지시하며, **제공된 체크카드는 자금세탁에 악용됨**

③ 기타

-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피해자] (B은행에 전화를 걸었으나 정지된 번호라는 멘트가 나온다.)

[B은행 사칭범] (피해자에게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고객님, 죄송합니다. 계속 업무방해 전화를 거는 채무자가 있어서 기존 번호는 정지시켜놓고 새로운 번호로 연락드렸습니다.”

※ 범인은 전화번호가 정지될 것을 대비해 여러 전화번호를 마련해둔다. 연락처가 계속 바뀐다면 범죄를 의심해봐야 한다.

[B은행 사칭범] “고객님 정확히 5천만 원 완납하신 거 확인되었습니다. 한 달 이후에는 저희 쪽 상품도 재계약 가능하시니까 다음부터 대출하실 때 계약 조항 잘 확인하시고 체결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상환금 안내 문자가 여러 번 가실건데 이거는 자동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직 은행 앱에서는 대출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실 텐데, 통합전산망에서 풀리는데 3일 정도 걸려서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된 게 확인될 겁니다. 제가 채권팀이다 보니까 말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고객님의 기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피해자] “아니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B은행 사칭범] “네, 고객님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은행에 상환했고 한 시간 정도 소요되신다고 A은행에 전화해보세요.”

[피해자] (A은행에 연락하여) “A은행이죠? B은행에 상환했더니 지금정지 풀렸다고 하네요.”

[A은행 사칭범] “고객님. 지금정지는 해제되었는데 곧 마감시간이고, 순번이 늦어서 내일 대출 실행해드릴게요.”

2차 피해

[피해자] (A은행에 연락하여) “오늘 처리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 됐네요?”

[A은행 사칭범] “고객님, B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됐던 이력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희망 대출금의 30%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해결할 수 있으니 불러드리는 계좌로 이체해주세요.”

※ 공탁금뿐만 아니라 보증금, 보험료, 위약금, 중도상환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3차 피해

[은행연합회(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사칭범] “안녕하세요, 은행연합회입니다. B은행에 대출이 있는데도 A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셔서 모니터링에 적발되었습니다. 전산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갚으셨죠? 그래서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셨습니다.”

[피해자] “죄송합니다. 불법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연합회 사칭범] “위반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되었습니다. 신용등급을 회복하려면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예치금의 80%를 먼저 돌려드리고, 3개월 뒤에 나머지도 돌려드릴테니 안심하세요. 계좌를 불러드릴테니 여기에 이체하세요.”

[피해자] “알겠습니다.”

4차 피해

[금융감독원 사칭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계속 대출을 시도하는 게 **작업대출 대상자**로 의심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실행 후에 납부한 보증료는 돌려드릴테니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하세요.”

[피해자] “네? 작업대출이요? 기존 이자가 높아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던 것뿐입니다. 보증서가 언제 발급될까요? 대출 받으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거라 급해요.”

[금융감독원 사칭범] “입금하시면 내일 오전 중에 처리하고 알려드릴게요.”

※ 피해자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갖가지 명목의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출을 받고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이다. 범인은 그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수차례 편취**한다.

기타 피해

- ① ‘무직자 가능·당일 지급’ 등의 인터넷 광고나 대출 관련 미끼문자에 텔000 아이디를 기재하여 피해자의 연락 유도
- ② 범인은 자신을 ‘대출 중개인’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에 앞서 신용도를 조회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신분증 ▲통장 사본 ▲신용카드 사진 등을 요구

※ 위 정보들은 본인인증에 이용되며, 특히 통장 사본·신용카드 정보는 전화요금 지불을 위한 자동이체 등록에 사용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

	③ 범인은 이를 이용해 통신사에 일반전화 및 대표번호(1588 등)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고, 피해자에게 “신용도 조회를 위해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라고 속여 통신사로부터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송하게 유도하거나 PASS 앱으로 요청된 인증을 확인하게 유도 ※ 이 과정에서 범인은 ‘대출금 증액을 위해 사업자나 법인 명의로 일반 전화를 개통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일반전화·대표 번호 서비스 가입 신청 및 착신설정까지 유도하기도 한다. ④ 범인은 개통된 전화번호를 전화금융사기 등에 악용
증거인멸 단계	원격제어 앱을 이용해 통화기록·대화내역을 전부 삭제하고 연락두절

	신한금융그룹
박슬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54, 광고빌딩 3층
영업사원	HP: 010- [REDACTED] FAX: 02- [REDACTED]
	E-mail: ghl [REDACTED] @naver.com

위조 명함

위조 대출거래약정서

위조 지급정지 요청서

위조 완납증명서